“이승만기념관 건립 반대운동 나서겠다”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 취임 1주년 기자회견서

“이승만, 불교를 분열로 몰아”
특별대책위 구성해 대응 추진
조계종 등 범종단적 연대 시사

문화사업단 운영 등 원만추진
태고보우 국사 선양도 ‘본격화’
12월 中불교계와 국제학술대회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취임 1주년을 맞은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이 7월 12일 열린 기자회견에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한국불교태고종 종도들은 ‘종교편향불교유린특별대책위원회’를 결성해 이승만기념관 건립 계획이 완전히 철회될 때까지 파사현정의 기치를 높이 세우고 이승만기념관 건립 반대운동을 결연히 펼쳐 나가겠다.”

취임 1주년을 맞은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이 서울 종로 송현광장에 추진되고 있는 이승만기념관 건립 사업에 대해 종단 및 범불교계 차원의 반대운동을 펼칠 뜻을 천명했다.

상진 스님은 7월 12일 한국전통불교문화전승관 3층 대불보전에서 총무원장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상진 스님이 발표한 회견문 대부분은 이승만기념관 건립 반대 입장과 계획을 밝히는데 할애될 정도로 태고종단의 깊은 분노를 확인할 수 있었다.

기자회견문을 통해 “현재 송현광장에 이승만기념관 건립 계획이 추진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국민이자 불교도의 한 사람으로서 참담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고 소회를 밝힌 상진 스님은 “과거 이승만 전 대통령이 정교분리라는 헌법 정신을 무시하고 7차에 걸친 유시 발표를 통해 불교계의 분쟁을 촉발시켰고, 이로 인해 한국불교는 극심한 분열과 갈등으로 내몰려 오랜 내홍의 아픔을 겪어야만 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승만 전 대통령은 자신의 정치적 목적과 개신교 교세 확장을 위해 국가 권력을 동원해 불교를 억압함으로써 친일불교 청산과 근대불교의 새로운 태동을 위한 한국불교의 자정 노력을 무산시켰다”면서 “그로 인해 우리 불교사는 역사에 씻을 수 없는 고통과 상처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송현광장의 의미도 다시 조명했다. 상진 스님은 “송현광장은 금강산 유점사 경성포교당 불이성 법륜사와 태고종 총무원사가 자리잡고 있고, 이웃 불교종단 조계종의 총무원도 함께 이웃하고 있어 불교계의 상징적 의미가 큰 장소”라고 밝혔다.

이어 “광장 일대는 4.19혁명 당시 무력에 희생당한 여중생들의 모교인 덕성여중이 위치했던 곳이며 수많은 민주열사가 희생당한 통한과 아픔이 서린 공간”이라며 “이런 장소에 이승만기념관을 짓는다는 것은 비단 불교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역사를 부정하고 국민을 기망하는 반민족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상진 스님은 교육원장 재홍 스님을 위원장으로 한 ‘종교편향불교유린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범불교적 이승만기념관 건립 반대운동을 펼칠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스님은 “이승만기념관 건립을 계속 추진할 경우 태고종은 특별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조계종 물론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소속 종단들과 긴밀히 협조해 전불교도적인 반대 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회견문 발표후 이뤄진 질의응답에서 상진 스님은 ‘송현광장 아닌 다른 곳에 이승만기념관이 건립되는 것은 반대 않겠다’는 입장에서 ‘전면 반대’라는 강경 노선으로 입장이 변화한 배경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상진 스님은 “이승만기념관 추진위원회와 논의를 가진 적이 있는데, 이 자리에서 위원회 측이 ‘협의하러 온 것이 아니라 통보하러 왔다’는 이야기를 했다. 황망하고 어이가 없었다”면서 “그동안 송현공원 아닌 서울 어느 곳에서 기념관을 건립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지만, 이제는 어느 장소에서도 이승만기념관이 건립돼서는 안 된다는 게 종단의 공식 입장이다. 저를 비롯한 태고종 종도들은 각오를 다졌다”고 강조했다.

이웃종단과의 연대도 적극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상진 스님은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장단은 정기적으로 공양 자리를 갖는데, 그 자리에서 기타 안건으로 이승만기념관 건립 반대운동을 내놨다. 모두 반대운동에 긍정적 의사를 보였다”며 “이미 조계종에서는 종교편향특위가 대응 중에 있다. 함께 연대해 반대운동을 전개할 수 있는 기반은 마련돼 있다”고 설명했다.

취임 1년간의 사업성과 등에 대해서도 질의응답이 이뤄졌다. 공약 사항이었던 ‘문화사업단 설치와 운영’에 대해서 상진 스님은 “현재 문화사업단은 설치돼 운영 중에 있다. 태고종은 중앙집권체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간 묻혀있던 동력을 끌어올리는 데에는 시간이 조금 더 소요된다”면서 “용궁사, 선암사, 태고사 등의 문화시설불사에 대한 지원을 비롯해 종단 유·무형 문화유산을 보존·활용하기 위한 사업들을 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 관계기관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태고종조 태고 보우 국사 선양사업도 속도감 있게 추진 중이다. 상진 스님은 “영남대에서 교수로 활동하시다가 현재는 정년퇴직해 태고사에서 공부하는 학자가 계시다. 이 분이 현재 태고 보우 국사에 대한 연구를 진행중”이라며 “올해 안에 태고 보우 국사 전문연구서가 빛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오는 12월에는 임제 선사의 19세 법손인 석옥 청공 선사와 그 가르침을 계승한 태고 보우 국사의 관계를 조명하는 국제학술세미나를 중국 불교계와 함께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치, 바른 선택 중요…‘선명상’ 체험을”

우원식 국회의장, 진우 스님 예방
정쟁 해결 위해 ‘바른 사유’ 강조



“첨예한 갈등이 잇따르는 정치에서는 국민을 위한 올바른 선택이 중요합니다. 이 같은 선택을 하려면 바른 사유를 할 수 있어야 하고, 이는 ‘선명상’으로 가능합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7월 15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우원식 제22대 국회의장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이같이 강조했다.〈사진〉

우 의장은 제22대 국회가 개원했지만 여러 정치적 현안들로 인해 국회가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지혜를 얻기 위해 진우 스님을 찾았음을 밝히며, 현재 첨예한 정쟁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구했다.

이에 진우 스님은 ‘선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스님은 “정치는 정말 옳은 것을 선택하고 이를 바르게 추진해야 하는 것이다. 결국 선택이 어려운데 이는 자신이 조금 더 손해를 보는 선택을 하면 된다”고 충고했다.

이어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필요한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자신의 멘탈관리가 가장 중요하다. 이는 선명상을 통해 잘 관리할 수 있다”고 선명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이 진영, 이념, 젠더 등의 갈등으로 치닫고 있다. 대회를 통해 세계에 한국의 선명상을 보급하려 한다”고 밝혔다.

김가령 수습기자

종단협, 2024년 하반기 사업 확정

8월 26~30일, 중국 오대산 순례
10월 29~31일, 일본 구원사 대회
10월 14~19일에는 세계불교포럼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진우 스님, 조계종 총무원장)가 7월 18일 서울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제2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하반기 사업을 논의했다.

이날 안건으로는 △한국불교지도자 해외성지순례 진행의 건 △제24차 한중일불교우호교류회의 일본대회 진행의 건 △제6차 세계불교포럼 참석의 건이 올랐다.

종단협은 8월 26~30일 중국 문수성지 오대산과 운강석굴에서 성지순례를 진행한다. 종단협은 2012년부터 불교의 사회적 역할을 논의하고 회원 종단 간 화합을 목적으로 순례를 진행해오고 있으며 올해 10회를 맞았다. 순례와 함께 중국불교협회를 방문, 우의 증진을 위한 활동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10월 29~31일에는 일련종 총본산 미노베야마 구원사에서 ‘제24회 한중일불교우호교류회의 일본 구원사 대회’를 개최한다. ‘공영사회 구축에 있어서 불교 정신의 가능성’을 주제로 하는 이번 대회는 세계평화기원법요와 학술강연회로 진행된다. ‘제6차 세계불교포럼’은 10월 14~19일 중국 절강성 닝보시 설두사에서 열린다. 세계불교포럼은 세계를 사랑하고, 생명을 돌보고, 불교를 장려하고, 자비심을 가진 지식인들을 위한 평등하고 다양하며 열린 차원의 대화와 교류 협력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올해는 ‘원력으로 함께하고 화합으로 공생하자’를 대주제로 9개 소주제로 발제가 이어진다.

임은호 기자

직할신도회·법우사 ‘천년을 세우다’ 동참

7월 12일 진우 스님 예방서…진우 스님 “마음 내줘 감사”



직할교구신도회(사진 왼쪽)와 전주 법우사(사진 오른쪽)가 ‘천년을 세우다’ 불사금 각 1000만원을 전달했다.

조계종 직할교구신도회와 전주 법우사가 경주 남산 마애부처님을 바로 모시는 ‘천년을 세우다’ 불사에 동참했다.

조계종 직할교구신도회(회장 최상원)와 전주 법우사(주지 삼명 스님)은 7월 12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해 ‘천년을 세우다’ 각각 불사금 1000만원 총 2000만원을 전달했다.

진우 스님은 “어려운 환경에도 마음을 내주셔서 감사하다”며 “힘들 때마다 부처님께 의지하고 열심히 살다보면 반드시 (부처님께서) 다 도와주실 것”이라며 고마움을 표했다. 법우사 주지 삼명 스님은 “경주 열암곡 마애부처님을 바로 세우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발원했으며, 곧 임기를 마무리하는 최 회장은 “비록 소임은 끝났지만, 뒤에서 열심히 돕겠다”고 다짐했다.

김가령 · 김민재 수습기자

제7회 삼귀의계오계 수계대법회

수계는 삼보를 믿고 의지하는 마음에서 물러서지 않겠다는 다짐이며
참된 나를 찾아가는 행복한 삶의 길잡이입니다.
삼귀의계오계 수계를 통해 불자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살아가길 서원합니다.
좋은 인연에 동참 바랍니다.

■ 일 시 : 2024년 8월 10일 토요일(음7.7) 오후 3시 ~ 5시
■ 장 소 : 부산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 5층 컨퍼런스홀
■ 三師 七證師
전계대화상 선응지현 대율사 (조계총림 송광사 율주, 관음사 회주)
갈마아사리 심산법미 대율사 (대한불교조계종부산연합회 3대회장, 홍법사 주지)
교수아사리 원허효명 대율사 (대한불교조계종부산연합회 4~5대 회장, 혜원정사 회주)
존증아사리 목종 율사 (대한불교조계종부산연합회 회장, 대광명사 주지)
존증아사리 하림 율사 (대한불교조계종부산연합회 수석부회장, 미타선원 원장)
존증아사리 도일 율사 (대한불교조계종부산연합회 상임위원, 관음사 선덕)
존증아사리 원순 율사 (재단법인 동명불원 원장)
존증아사리 만초 율사 (대한불교조계종부산연합회 부회장)
존증아사리 지일 율사 (대한불교조계종부산연합회 부회장, 내원정사 주지)
존증아사리 담화림 율사 (대한불교조계종부산연합회 부회장, 무진선원 주지)
■ 수계동참금 : 3만원
■ 복 장 : 상의(흰색), 하의(편한바지)
■ 문 의 : 사무국 051)501-7554
■ 주최 · 주관 : 대한불교조계종부산연합회



윤인수 원장 연구개발

겨우살이환
재료명: 겨우살이, 느릅나무뿌리껍질, 도라지, 더덕, 모과, 천문동, 맥문동, 비파잎, 삼백초, 뽕나무뿌리껍질, 둥굴레뿌리, 무화과, 탱자, 대추, 산사나무열매, 맥아
비염이 있습니까? 숨이 차십니까? 기침,가래가 힘드십니까? 천식에 힘드십니까?

여 주 환
재료명: 여주, 돼지감자, 바나바잎, 민들레, 복분자, 옥수수수염, 오미자, 구기자, 천문동, 창출, 뽕나무뿌리껍질, 음나무줄기, 독활, 작약, 칡뿌리, 감초, 산사나무열매, 맥아
당뇨 있으신 분 혈당수치관리를 위해 여주환을 드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전복껍데기환[석결명 스틱]
재료명: 전복껍데기, 마리골드, 국화, 민들레, 엉겅퀴, 백작약, 다시마, 톳, 산사나무열매, 맥아
백내장, 녹내장, 황반변성, 당뇨망막병증 등 눈에 문제가 생기면 석결명환으로 해결하세요.
세종대왕께서도 드셨다고 세종실록에 나와 있습니다. 추사 김정희 선생도 제주도 유배시 석결명환을 드셨다고 방송되었습니다.

폐청소법, 치매·중풍 예방법 등성인병에는
윤인수 원장의 경혈자극요법을 활용하세요.
불면증, 어지럼증, 이명(귀울림), 두통, 고혈압, 저혈압, 동맥경화, 만성설사, 목이 쉬었을때, 건망증, 협심증, 위염, 변비, 안면신경마비, 졸음병, 실어증, 삼차신경통, 간경화, 황달, 대상포진, 피부가려움증, 생리통, 생리불순, 다이어트, 귀머거리, 녹내장, 갑상선 이외 총 287종이 수록되어 있음.
전화주시면 간략하게 설명드립니다

골담초환
재료명: 골담초분말, 쇠무릎뿌리, 황칠나무, 두충, 가시오가피, 참당귀, 울금, 덩이뿌리, 쇠비름, 독활뿌리, 개다래열매, 천마뿌리, 율무, 질경이, 음나무줄기, 왕느릅나무껍질, 엉겅퀴, 산사나무열매, 맥아
허리, 다리가 불편하십니까? 오래 걷기 힘드십니까? 계단 오르기 힘드십니까?

산수유환
재료명: 산수유열매, 옥수수수염, 복분자, 오미자, 구기자, 토사자, 사상자, 복령, 마가목열매, 뽕나무뿌리껍질, 참당귀, 천궁, 우슬, 오갈피, 두충, 질경이, 산사나무열매, 맥아
소변때문에 밤에 몇번씩 일어나십니까?

어성초환
재료명: 어성초, 적하수오, 자소엽, 측백나무잎, 서목태, 원지, 우슬, 천문동, 마가목열매, 복분자, 솔잎, 뽕나무뿌리껍질, 녹차잎, 창출, 구기자, 산사나무열매, 맥아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십니까?



하지 · 아이케어센터 | 구입문의 : 02-969-9007 / HP.010-3245-0118
농협 : 301-0234-9633-61 / 예금주 : 윤제하